

진흙속에서 핀 연꽃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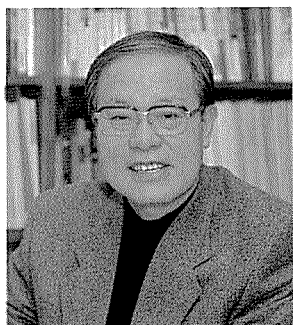
역경과 갈등 극복하기

“

될 수 있으면
작은 갈등, 작은 고통도
그저 피하려고만 드는게 우리다.
사르트르가 인간을
“망망대해위의 나비”에 비유했듯이
역경의 바다에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나비’가 되어야한다.
역경을 극복하여 살아 남기 위해
끊임없는 날갯짓을 해야 하며
한시라도 쉬거나 이를 피하려 들면
그대로 바다에 추락한다.

■ 편집자 주

”



최해병 / 한국휠드마케팅연구원장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르노아르는 말년에 심한 신경통을 앓았다. 손가락이 마비되어 붓을 잡을 수 없게 돼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붓대를 칭칭 감은 손에다 붓을 끼워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라며 애처로워 하는 아내를 오히려 위로하기도 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신의 건강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 것이다.

역경이 내뿜는 빛나는 천재성과 완히

살다보면 때로 심하게 앓을 때가 있다. 사람은 묘하게도 아파봐야만 건강에 고마워한다. 고야라는 화가 역시 콧병을 앓았다. 굵기야 귀가 멀어 신경질적인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성한 눈이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했다.

「물방앗간의 처녀」, 「백조의 노래」 등 주옥같은 슈베르트의 가곡은 짝사랑의 애달픈 사연이 낳은 명작들이다. 너무나 가난하고 내성적인지라 사랑을 고백 할 수 없었던 그는 노래로 마음을 달랠 것이다. 수많은 시인·예술가·작가 등이 실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원동력이 악처 덕분이라는 일화는 잘 알려진 사실. 불행한 결혼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게 한 예다. 사람은 안에서 재미를 못 붙이면 밖에서 하는 일이나마 즐겨야 한다. 한쪽이라도 만족해야 구멍난 다른 쪽을 메워 정신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보상심리에서 비롯되는 정신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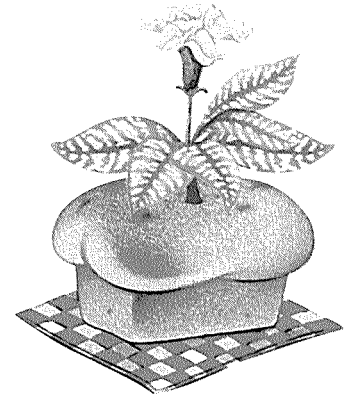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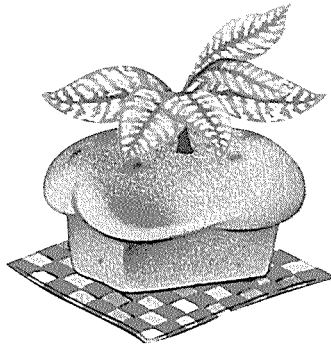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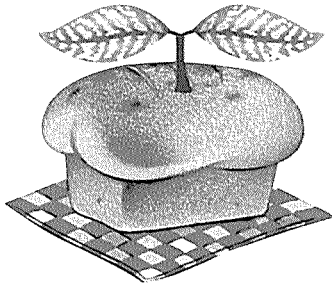
오른손이 불구가 되면 왼손 기능이 그만큼 발달한다. 양손이 불구가 되면 발이 대신한다. 영화 「나의 왼발」은 그래서 감동적이다. 역경을 역으로 활용하는 데서 고야의 천재성이 빛나고 르노아르의 환희가 물처럼 번진다.

르노아르의 그림은 밝고 즐거운 생의 향연으로 가득차 있으며 인격적으로 승화된 그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사람은 역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좌초하고 미는 사람도 많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하는 사람도 있다. 역경이 가져다주는 보상의 원리, 즉 보상의 힘을 믿고 이를 찾아 개발해야 한다.

망망대해의 나비, 끊임없는 날갯짓

곤경에 빠진 짐승이 더 잘 싸운다. 역경이 때로는 무서운 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인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중 ‘엔돌핀’은 상해를 입었거나 몸이 아플 때 혹은 긴박한 상황에 닥쳐 공포, 초조, 긴장, 불안이 엄습할 때 분비된다.

엔돌핀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타인에 게 가격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엔돌핀이 수초내 분비돼 통증을 참고 반격할 수 있다.



엔돌핀이 모르핀의 100배에 맞먹는 진통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싸움이 끝나 마음이 안정되면 엔돌핀 분비량이 줄면서 우리는 서서히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역경과 고난은 노력 여하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작은 갈등, 작은 고통도 그저 피하려고만 든다. 사르트르가 인간을 ‘망망대해위의 나비’에 비유했듯이 역경의 바다에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나비’가 되어야 한다. 쓸개즙처럼 쓰디쓴 고통을 극복하여 살아 남기 위해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야 한다. 한시라도 쉬거나 이를 피하려 들면 그대로 바다에 추락한다.

꿀통에 빠진 파리

파리는 달콤한 꿀의 유혹에 걸려 제자신이 꿀통으로 빠져드는 것을 모른다. 누구나 편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그러나 작은 갈등도 못 견뎌 끽대기보다 넓게 멀리 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간혹 우리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것을 놓치는 ‘꿀통에 빠진 파리’ 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많은 예술가들의 생애가 불우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에게 따라선 일부러 갈등을 만드는 이도 있다. 그것이 생의 활력소이며 자극제가 된다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편하면 일이 안된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특히, 작가는 심신이 편하면 글이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를 일부러 찾아다니던 헤밍웨이의 걸작도 이슬이슬한 벼랑 끝에서 나왔다. 결국, 세속적인 편안함에 젖어 들면 예술가나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세계를 움직인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고 좌절을 몰랐다. 오히려 갈등이 클수록 그들의 신념은 단단함을 더했고 강인한 정신력은 담금질되어 갔다. 갈등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 위대한 업적의 원천이다. 갈등은 생각을 확장시킨다.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멀리 넓게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다.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

일본에서 ‘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께는 어려서부터 몸이 쇠약했고 늘 잔병치레가 심했다. 게다가 집안마저 가난하여 소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못 배운 것을 독학으로 보충했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항상 배우는 자세와 메모하는 습관으로 자기 개발에 힘썼다.

또한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권한을 되도록 부하에게 위임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데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산다는 것이 곧 갈등이다. 갈등 속에 살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곧 인생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갈등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해결방법도 다르고 갈등을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이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피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게 아니며 더 큰 갈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선 피하고 보자는 사람이 많다. 피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그만 주저앉게 되고 실의와 낙담으로 재기불능의 늪 속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좌절·체념, 어느 것도 참다운 삶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힘들더라도 정면 도전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어떤 갈등도 죽음에 직면한 병고만큼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죽기로 마음을 굳힌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뼈를 깎는 갈등 속에서도 삶의 기쁨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깊은 갈등이 인간을 오히려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갈등의 늪에서 참진실의 꽃이 핀다. 아름다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람이 괴로울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의 척도가 된다. 괴로워도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해보라. 그럴 수 있는 당신을 주위 사람들은 존경할 것이다. 모든게 순조로울 때는 당신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줄 기회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온 날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 갈 날이다. **121**